

# Laus Veneris. swinburne

예술제본의 대중화 연\_\_\_\_  
제본. 예술가의. 대표작.

- 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 ● <출판저널>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원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40)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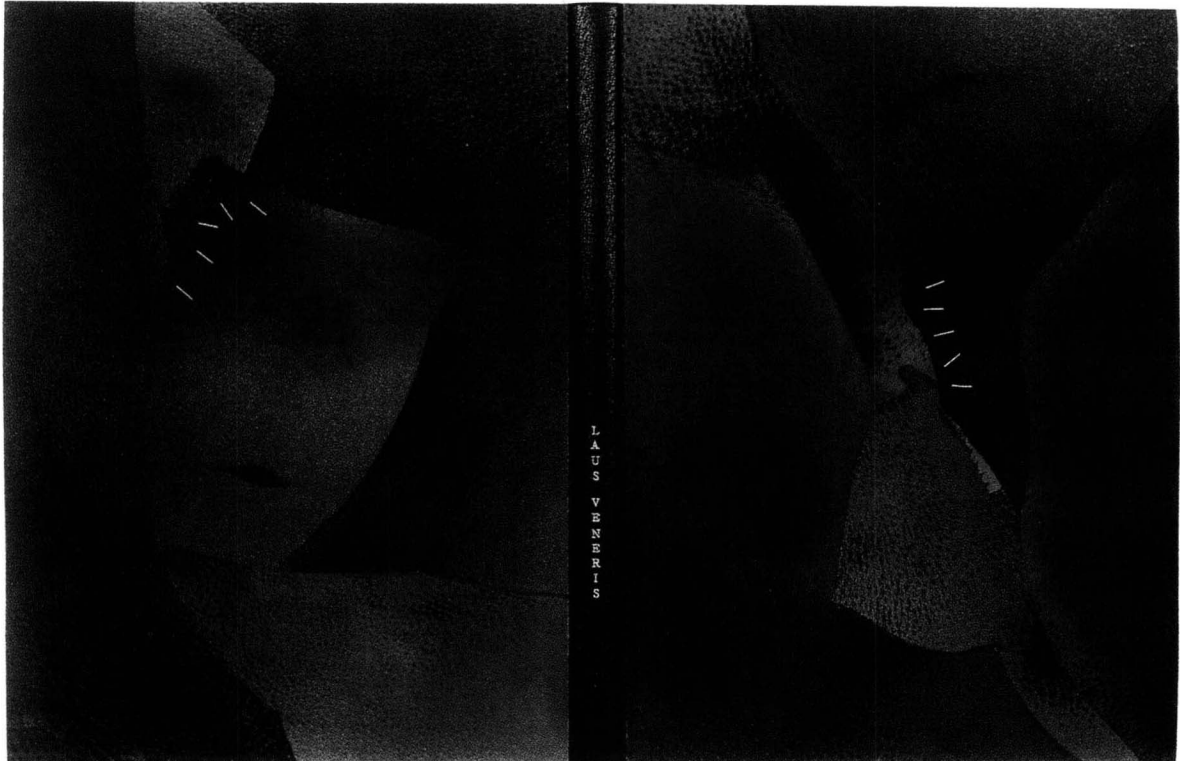


많은 조각의 가죽을 붙였을 때 이음새 부분이 완전한 평면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가죽의 가장자리를 아주 얇고 정교하게 저며 줍니다.

백순덕 | 랙도베르소 대표

이 책은 책등에 암태지 가죽을 사용했고, 표지의 가죽들은 표면을 한 끼풀 벗겨낸 돼지가죽에 에어브러시로서로 다른 색상을 입혔습니다. 작고 얇은 나무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간소화된 제본이라고는 하나, 이 책의 제본이 완성되기까지 실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제본들이 책등과 표지부분을 우선 연결한 후 표지를 씌우는 데 반해 이 제본은 책등을 먼저 씌운 후, 두 개의 표지(판지)를 별도로 작업한 후 책등과 연결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조각의 가죽을 붙였을 때 이음새 부분이 완전한 평면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가죽의 가장자리를 아주 얇고 정교하게 저며 줍니다. 또 가죽이 느슨해져 늘어지지 않도록 가죽 뒷면에 종이를 붙인 후 장시간에 걸쳐 사포질을 해줍니다. 같은 가죽이지만 표면의 느낌이 다른 것은 가죽 표면을 갈아줄 때 그 횟수를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 “Laus Veneris”. swinburne

Jacques Villon의 eaux-fortes(부식동판화) · 1947년. 15/150 · 제본명 Reliure Simplifiée(간소화된 제본) · 1989년 작품

이 책을 제본한 이는 헝가리 태생의 프랑스인 Sun Evrade 입니다. 그는 20세기의 아름다운 책 수집가였던 남편에 의한 권유로 25살부터 예술제본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파리의 사립명문 UCAD에서 제본교육을 받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양식의 현대적인 제본을 수없이 개발해 냈습니다. 특히 기존 예술제본의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분위기를 지적하고, 일반인이나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본기법들을 제시,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제본을 대중 속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돼지가죽, 물소가죽, 캥거루, 악어가죽 등 다양한 가죽을 통한 표지장정에 있어 그녀는 마술가로 불려집니다. 가죽을 사포질하고, 에어브러시로 염색을 하고-그녀는 직접 입으로 붙여 염색을 합니다-가죽을 뒤집어 사용하는 등 그녀가 원하는 표지장식을 위한 가죽 취급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고급가구 제조인, 가죽 가는 사람, 보석세공인, 금박 전문가 등의 외부 직업인들과의 연계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세계를 펼칩니다. 제본에 있어 열린 정신과 개척자, 발명가의 정신을 실현하는 예술제본가로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그녀는 Coree 라는 나라에 홀로 뚝 떨어진 세계 <예술제본>의 씨앗을 꾸준히, 제대로 뿌리기를 당부하고 늘 지켜봐주는 저의 진정한 스승이며 친구이기도 합니다. **출판**